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11호

2024.08.08(목)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1차 지부교섭 : 사측 3차 제시안 제출]

아직 부족하다

축소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의견접근 불발



3차 제시안 나왔지만

11차 지부교섭이 8월 8일(목) 대한이연에서 열렸다. 사측은 3차 제시안을 제출했고 축소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노사 양측은 축소교섭에서 주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차기교섭에서는 의견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마무리 위한 진정성있는 노력 필요

이 날 사측은 자신들의 제시안에 대해 지난 번에 비해 훌륭한 내용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노측 교섭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1시간 반 정도 축소교섭까지 진행했지만 의견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통일요구안 (좋은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면제 제도 개선)과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적용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기 교섭에서는 끝장 보자!

다음주는 광복절인 관계로 지부교섭이 열리지 않는다. 2주 후인 22일 12차 교섭이 열린다. 노사 양측 모두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다. 사측이 오늘 축소교섭에서 주고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제시안을 준비한다면 충분히 차이를 좁힐 수 있다. 사측이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급할 것 없다. 쟁의권은 아직 살아있다.

* 차기 교섭 : 8/22(목) 14:30, 코스모링크

11차 교섭 속기록

마무리 단계로 가려면 진전된 내용 가져와야

노 : 날이 상당히 무덥다. 대부분 사업장 휴가 다녀왔다. 휴가 전후에 현장에서 야차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안다. 안전에 만전 기해달라. 오늘 길게 얘기 안하겠다. 제시안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드렸다. 오늘은 진전된 제시안 제출해서 지부교섭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자.

사 : 요즘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지부교섭이나 각사 현안들이 아직 원활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다. 우리 지역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히 해결한 경험이 있는데 금년도 빠른 시일에 마무리 짓고 각사 현안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란다.

〈제시안 제출〉

노 : 중앙교섭 요구안 중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내용 중 연내 제출한다는 내용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뭔가?

사 : 일부 사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회사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노 : 오늘 제시안이 나오면 축소교섭 통해서 내용 조율하고 임금 관련해서는 아직 제출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으니 다른 내용이라도 의견접근할 수 있게 해볼까 고민이 있다. 지부장이 통일요구안은 중앙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지금 상태에서 축소교섭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교묘하다. 사측은 중앙 의견 접근안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냥 똑같이 제출해라.

사 : 중앙교섭에 사측 9개사 중에 7개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중앙교섭 의견접근안과 동일한 내용을 제출하는 것도 힘들다. 앞서 내용 보다는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노 : 축소교섭할 의향 있나? 지금 제출한 내용에서 수정제출할 의향이 있는가?

사 : 논의해보겠다.

노 : 임금인상안도 6월부터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없다. 노측 교섭위원들은 임금까지 축소교섭 통해서 다뤄서 늦게까지라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왔다. 지부교섭 마무리 단계로 가는 노력을 하려고 했다. 우리도 급한 것 없다. 쟁의권 살아있고 사측 교섭태도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올해 그냥 한 판 붙어보자고 하는건가? 가뜰이나 대전충북지부에 투쟁사업장이 점점 늘고 있다. 일단 정회하고 축소교섭에서 논의해보자.

〈14:48 정회〉

〈축소교섭 진행〉

〈16:26 재개〉

노 : 축소교섭 통해서 의견이 여러 가지 오고갔다. 다시 한번 교섭위원 생각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전달한 의견 바탕으로 22일 차기 교섭에서 교섭위원들이 만족할 수 있을만큼 의견 모아서 제출해달라.

종료 : 16시 30분